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보성군, '재난·안전관리 대책 사업' 2년 연속 선정

1억 5천만 원 확보 안전교육·안전용품 보급 추진



보성군은 지난 12일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 재난·안전관리 대책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보성군은 2년 연속으로 재난·안전관리 대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 사업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군민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실시된다.

확보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는 영·유아, 청소년의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

통사고·화재예방·심폐소생술 등 생활밀착형 안전교육(300여 회)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에 교통안전조끼, 야광 가방 커버, 안전헬멧, 화재 대피용 흡수건 등의 안전용품을 보급해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고 안전 사고 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지난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288개소에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교육을 총 849회 실시해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 스스로 위험행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길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산림박물관, 목재 창작소품 전시회 개최



영광군에서 운영하는 영광산림박물관은 17일까지 목재 창작 소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나무, 숲, 거미줄'이라는 주제로 나무가 갖는 결, 무늬, 향을 살린 목공예 작품 65점을 선보인다. 명주실이나 끈으로 매듭을 지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늬를 만들어

장식하는 유립식 매듭공예인 '마크라메'를 나무에 접목한 작품 35점을 전시 중이며 전시장 중앙 공간에서는 목재와 마크라메를 조합한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팬백나무, 참죽나무, 느티나무 원목 제품과 상시화와 굴비 모양 핸드폰 열쇠고리 등 30점도 전시 중이며 핸드폰 열쇠고리는 현장에서 판매도 한다.

이번 전시회를 갖는 이영일 작가는 "기계가 똑딱하면 나오는 요즘 시대와 다르게 통나무를 일일이 재단하여 수작업으로 소품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면서 계속 견디보

면 걸림길에서 좋은 길로 향하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광산림박물관은 2015년 9월 8일 개관하여 매년 7만 여명이 찾고 있으며 주제 전시관 4개와 기획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은 2018년에 새로 단장하여 지역 대표 전시 공간이 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은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으므로 장르에 상관없이 전시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시 참여를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시 '청수골 새뜰사업'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국 롤 모델로 자리매김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도시 새뜰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청수골 새뜰사업'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에서 낙후된 도시 탈출을 위한 주거 안전과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새뜰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지를 매년 평가한 결과다.

평가대상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불량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개선 필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새뜰사업으로 선정된 66개 지역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사업의 집행, 사업의 성과, 사후관리로 마을 주

민의 역량,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 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청수골 새뜰사업'은 2015년부터 소방도로, 주민 커뮤니티센터,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도시가스 공급, 재해위험시설 정비, CCTV 설치 등을 주거안전과 환경 개선에 주력해 왔다.

순천=김승호 기자

함평군, 귀농·귀촌 지원 통해 도시민 유치

함평군이 귀농·귀촌인 지원 시책을 통해 도시민 유치를 적극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 인영농기반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비 지원, 시설물 설치자금 보조, 농업 창업 용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본격 실시한다.

먼저 귀농농정착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10개 농가에 농기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에는 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4개 농가를 지원한다.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소규모 하우스 지원 사업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개 농가를 지원하고 수리시설이 불리한 지역에 관정을 지원하는 귀농인 관정개발 지원 사업에는 중형관정 신청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양시 남해오네뜨 분양전환관련 임차인 공금증 해소에 적극 나서

사전 안내 책자 배포·공청회 참석 법적사항 질의 응답

광양시는 남해오네뜨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공금증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양시 광양을 와룡길 43에 위치한 남해오네뜨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지난 2월 25일자로 임대대우기간이 종료됐다.

현재는 감정평가사 선정 및 무주택자 전산의뢰 등 분양전환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 제21조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해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은 폐지된 법이지만, 2015.12.29.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건설한 주택에 해당해 종전

의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에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5월에 불과하여 구법을 적용 시 수많은 임차인들의 개별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를 4차례 방문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법의 미비점 등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유권해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최근 마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남해오네뜨 분양전환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법적사항을 설명하고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공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1188 걷기의 날' 운영



순천시보건소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는 3월부터 매월 11일을 '걷기의 날'로 지정하고, 최근 센터 이용자,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첫 '1188 걷기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걷기 실천율이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걷기 문화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매월 11일을 무발로 활발하게 걷는다는 의미를 담은 '1188 걷기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정원 등문예 집결해 걷기 전문 지도사의 건강체조를 시작으로 올바른 걷기 등 사전

교육 후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작년까지 걷기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나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번씩 걷기 행사가 마련되어 매년 즐거운 기분으로 참여하겠다"며 "간만에 미세먼지도 없는 상쾌한 날을 맞아 국가정원을 걷게 되어 좋고 다음 달은 꽃들과 함께 걸어 볼것 생각하니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용석 순천시 보건소장은 "바쁜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걷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건강한 순천시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광양시 보건소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22일까지 만44세 이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것.

지원 대상은 만44세 이하의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4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한약과 한방침·뜸 등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받게 된다.

시에서는 침과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희망자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례기관 선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